

# 병원간 협진으로 본 우리나라 원격진료의 공간 특성

## Telemedicine in Korea: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Referral System between Hospitals and Clinics

박수경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maria1570@empal.com)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원격진료가 시도된 바 있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인터넷 도입과 의료계의 정보화 관심이 날로 증대되면서 의료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원격진료는 크게 인터넷을 통한 건강 상담,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진료, 병원간 협진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병원간 협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병원간 협진이란 팩스, 전자메일 등부터 최근에 등장한 웹(web)을 통한 방식을 이용하여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일종의 병원 상-하 관계이며, 원격진료의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의료 기관은 인구의 규모를 반영하여 분포하고 있지만, 협진에 있어서 상위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들은 특별시, 광역시와 같은 일부 대도시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진이 지역의 하위 병원들이 치료하지 못하는 의료 서비스를 보완코자 시작했던 체계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협진은 일부 지역에서만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협진의 범위는 병원의 위치와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상위 병원들은 협진을 맺고 있는 하위 병원의 분포가 전국적인데 반해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 상위 병원들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위 병원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역 안에서 병원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협진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울의 E 병원을 사례 연구한 결과, 협진을 맺는 병원급은 의원급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시내의 의원급 병원뿐만 아니라 지방에 입지한 의원급에서도 E병원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 이동 소비를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생각지 않는 환자들의 인식, 의료진 및 시설에 고려 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론적으로 볼 때, 협진은 지역 속성을 갖고 지역 내 상, 하위 병원이 서로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격진료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환자의 시공간 이동을 효과적으로 절약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앞으로 원격진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론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이보다 앞서 병원 형평성에 대한 문제, 의료진과 환자들의 의식 전환, 법제도의 정비 등이 선결될 사안인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